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연구로 경각심을 일깨우다

오탁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CNN, 로이터 등 외신 뉴스를 즐겨본다. 시사에 관심이 많거나 어학 실력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의 관심사는 ‘연구’다. “외신 뉴스에 나오는 사회적인 주제들은 곧 우리 사회에서도 대두 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7~8년 전 미국 뉴스에서 마약성 진통제 실패와 부작용을 다루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의 마약성 진통제 장기복용 연구 논문은 유명 학술지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일단 학술지에 게재된 뒤는 완전히 달랐다. 다른 논문에 인용되는 피인용 횟수가 크게 증가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마약성 진통제 관련 논문에서 1순위로 인용되는 논문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의 논문이 마약성 진통제의 부정적인 효과와 오남용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과급력을 가진 연구로 주목받다

오탁규 교수는 전임의 시절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규모 인구 코호트 연구로 최근 5년간 약 180편의 논문을 SCIE 급 학술지에 게재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최초로 국내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실태를 분석해 과다한 처방이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망률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혀 마약성 진통제 처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최근에 미국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양심선언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미국은 병원 평가에 있어 환자 만족도 비중이 높습니다. 병원 평가를 잘 받으려면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니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처방했고, 그 결과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의료진은 경각심을 갖고 있어서 예방할 기회가 있다고



오탁규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규모 인구 코호트 연구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의 부정적인 효과와 오남용 문제를 알렸다.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오탁규 교수는 전공인 예방의학에 역학, 의료정책, 환경의학 등 다양한 주제를 접목하는 연구를 계속했다. 세 부전공인 중환자 관리에서 코로나19, 패혈증 등으로 입원한 중증환자가 생존 후에 겪는 후유증을 분석해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그의 연구들은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것은 물론 의료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유용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환의 사회경제적 과급력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올바른 제언을 하는 것도 의과학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해외 데이터 베이스와 결합한 빅데이터 연구를 비롯해 새로운 치료 지침과 가이드라인 생성에 도움이 될 대규모 임상시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탁규 교수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의료정책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글 편집부**